

김진애의 ‘이 시대 리더십’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팀워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대통령 데리인단의 지연 전략에 시달리고는 있지만 사법과정의 원칙에서 벗어날 리가 없다. 80%에 가까운 국민이 박근혜의 대통령직 수행을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3월 13일이라는 합리적인 데드라인 내의 현재 판결을 막기 위한 박근혜 데리인단의 행태는 치사하고 졸렬하고 야비하고 고약하다. ‘과연 이럴 수가?’ 할 정도로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패륜들을 들추어내고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와 증언까지 채택하자고 하는 것이 최후의 발악으로 보일 정도다.

국민의 힘은 기어코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 것이다. 탄핵이 가각된다면 그 후 폭풍은 상상하기조차 무섭다. 부정한 권력은 복수의 칼을 뽑아들 것이고, 대한민국 국의 정의와 상식은 온데간데없어질 것이고, 국민의 분노는 견잡을 수 없이 폭발할 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다짐하며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켜는 이윳다.

상황은 엄중하다. 대통령 권위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고, 그 대통령

은 선출되는 즉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우리의 미래를 정해야 한다. 이 엄중한 시기에 어떤 한 생각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새로운 정부는 과연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국민에게 어떤 희망을 주어야 하는가?

대선 후보들 특히 야권 후보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고 각 후보의 지지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설전을 벌이며 지지하는 후보를 띄우고 상대 후보의 흠결을 지적하고 있다. 때로는 후보들 자신의 입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당연한 현상이나 한편 격정이 되기도 한다. 시민 혁명을 성공시키고도 적전 분열함으로써 쿠데타 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줬던 1987년 상황이 재연되지나 않을 까 하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다. 준비시간이 짧은 만큼 경쟁이 훨씬 더 뜨거워지는지라 우려가 더 커지기도 한다.

정권 교체를 바라고 공정한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열망하는 국민이라면 ‘그 어느 때보다 팀워크가 필요할 때’임을 강조도 강조하기를 바란다. 지난 10년 동안 속

수무책으로 망가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상처를 치료하면서 새로운 미래 역량을 키우려면 그 어느 때보다 같은 목적,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팀워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교 안보는 갈 곳을 잃은 채 막무가내로 치닫고 있어 그야말로 안보와 외교의 기본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가계부채의 화약고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와중에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인위적으로 부풀려온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일자리 문제가 얼마나 더 큰 사회문제를 만들어 낼지 모른다. 구시대의 경제 활력은 꺼지고 있는데 새 시대의 경제 활력은 썩어 트기도 전에 기운을 잃고 있는 지경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팀워크가 필요할 때다. 그 점정에 국익에 투철하고 공익에 철두철미하며 민생에 밝은 대통령이 필요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준비되고 훈련된 팀을 이루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민생·과학·산업·노동·외교·안보·국방·

교육·복지·환경 등 전 분야에서의 뿌리 깊은 개혁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인재들이 팀워크를 이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10년 폐해가 그저 심년 만에 일어난 폐해가 아닌 것은 국민 모두 알고 있다. 잘못 태어나고 길러진 세력이 경제 권력, 언론 권력, 학벌 권력 등을 장악한 것도 모자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권력을 장악하여 국민의 눈을 가리고 노동자의 고혈을 빨아먹고 나라의 안보와 경제 성장까지 위협하는 악순환은 이제 멈춰야 한다.

부디 근사한 팀워크를 통하여, 우리의 가슴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기를, 국민이 정부를 걱정하지 않게 해 주기를, 우리가 매 주말 촛불을 들지 않더라도 정의와 공정함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기를, 대한민국의 경제 열매를 같이 키우고 같이 나누기를, 아이디어와 열정 가득한 사람들이 그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게 되기를, 대생부터 잘못된 권력을 누려 온 세력이 더 이상 득세하지 못하게 하기를, 건철하게 민생·과학·산업·노동·외교·안보·국방·

의료칼럼



이 상 호
조선대치과병원 소아치과 교수

어린이들을 치료해 온 지 30년이 넘었다. 그동안 수많은 어린이 환자를 치료하며, 어린이는 물론 어머니들과도 많은 접촉을 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했다. 바로 어린이의 성격이나 행동양상이 어머니의 성격과 행동양상과 너무도 닮았다는 것이며, 입안의 청결상태 또한 너무도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얻은 하나의 생각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구강위생에 대한 계몽도 중요하지만, 어머니도 포함해 같이 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라는 생각이다. 여성은 신으로부터 2세를 낳고 키우는 생리적 본능을 더 많이 부여받아 어린이의 성격발달에 영향이 큰 수유, 배변훈련, 건강과 섭생, 그리고 교육 등을

엄마 구강위생이 아이 치아 건강 좌우한다

주도하게 된다. 위대한 발달심리학자인 프로이트는 어린이의 성격은 5세 이전에 90%가 형성된다고 했으며, 성격형성에 수유와 배변을 주도하는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고 했다.

치과적으로 어린이가 최초의 충치군도 어머니로부터 전해지므로 어머니의 구강 위생상태가 어린이 구강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어린이가 치아가 나기 시작하는 생후 6개월 경부터 엄마의 충치균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어린이에게 전달되는데, 이때 엄마의 입안이 청결히 유지되고 있으면 충치균의 양도 적고 독성도 크지 않는 세균들이 전파될 것이고, 반면 엄마의 구강 위생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세균의 양도 많고 독성이 큰 세균들이 전파될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가 2~3세가 되면 치아 건강 상태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은 소아치과 진료에 누워 힘든 치료를 받으며 울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많은데, 이는 어머니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중종 어머니들이 “이 녀석이 도무지 이를 안 닦으니 선생님이 야단 좀 쳐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 이때마다

저는 적당히 엄부리며 결코 어린이를 야단치지 않는다. 이는 어머니에게 좀 더 강력한 지도를 요구하는 메시지만인 것이다.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이를 튼튼하게 하는 음식이나 약은 없나요?”인데,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대답은 “음식은 없지만 약은 있습니다”라고 한다. 어린이에게 충치가 잘 생기고 안 생기는 음식을 선별적으로 먹일 게 아니라 모든 음식을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먹게 하는 것이 더 큰 의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중요한 건 잇솔질이다.

요즘은 충치를 약으로 치료한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초기 충치(백반)는 약으로 치료 가능하다. 대개 충치는 초기 단계의 충치인 백반을 방지해 발생하게 된다.

근래에 당뇨병의 진단 기준이 공복혈당 측정치가 140mg/dl에서 120mg/dl로 내려갔으며, 고혈압의 진단 기준 역시 140/90mmHg에서 130/80mmHg로 내려갔다. 이렇게 질환의 진단 기준치를 내림으로써 많은 환자들이 조기에 치료를 받게 되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제 우리 치과의 충치 기준도 눈에 보이는

충치에서 눈에 안 보이는 충치인 백반 상태에서부터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치아들이 초기 충치로부터 구제받게 돼 고생하는 경우가 줄어 들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충치의 초기상태인 백반은 증상으로 없고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초기충치는 치과의사들이 여러 가지 기구나 방법을 사용해 세심히 관찰해야 보인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 할 수 있다.

초기충치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주로 치아에 바르는 형태이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불소 바니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클로르헥시딘, 트리칼슘포스페이트, 칼슘-카세인 포스페이트 등 여러 가지 제제가 있으며 최근에는 레진 침윤법 등의 첨단기술도 사용되고 있다.

엄마의 구강이 건강해 아이의 구강도 건강하다. 소아치과 의사가 엄마의 건강을 세심 강조한다는 것이 역설적일 수도 있지만, 엄마 건강과 생각이 세상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기 고



노 원 기
광주시 공원녹지과장

산불 예방 실천이 그렇게 힘든가요

산 정상 8부 능선까지 오르는 5월이 다 갈 때까지 노심조사의 연속이다.

최근 철재에서 산불이 다 서울시의 10배에 달하는 면적이 불 타 이제한 7422명과 11명이 사망하고 1624채의 가옥이 불에 타 3억3000만 달러(3823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산림을 조성하고 지키는 직업을 가진 나는 남의 일 같지 않아 가슴이 아팠다.

최근 광주시 산불 현황을 보면 10년간 연평균 5.7건이 발생하여 산림 1.93ha가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3~4월인 봄철에 발생건수의 66.6%인 38건과 피해면적의 69%인 13.34ha가 집중되고 있다.

봄은 우리에게 희망과 새로운 활력을 준다. 대지에도 새 생명의 씨이 돋아나고 있다. 봄은 아직 차가운 바람결을 느끼면서 산에 올라 자연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기다. 산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즐겨 찾는 시민들 각자가 산불조심에 앞장서야 새싹이 움트고 온갖 꽃들이 만발하는 봄의 산을 시민 모두가 함께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산에 오르는 것은 맑은 공기만을 호흡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산길에 소담하게 피어나 수줍게 흔들리는 야생화의 생동감을 느끼는 것도 묘미지만,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는 즐거움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지구 환경문제를 일깨운 레이첼 카슨은 저서 ‘침묵의 봄’에서 봄은 왔지만 새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봄을 얘기했다. 숲을 지키는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언젠가는 새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경고다.

우리의 숲은 미래 세대들에게 잠깐 빌려와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숲의 나무는 한 그루당 연간 9.36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많은 나무와 풀, 해아릴 수 없는 미생물, 곤충, 야생동물들이 모여 살고 있다. 울창한 숲은 풍요롭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며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는 효과가 대단히 크다.

그러나 산불은 아주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한다. 산에서 담뱃불을 버리거나,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취사행위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된다. 산불발생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가 40%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특히 입산자가 많은 오후 2시~6시 사이에 전체산불의 50%가 발생하였다. 아주 작은 관심만 더 기울여도 충분히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다.

특히, 봄철에는 평균습도가 낮은 날이 많고 산속에 수북이 쌓인 바짝 마른 낙엽

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므로 작은 불씨에도 쉽게 큰 불로 번지는 상태가 된다. 여기에 바람까지 가세하면 산상으로 화기 옮은 재앙이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히고 있으나, 지난 2000년 동해안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2만 3000ha 산림이 소실되었고, 2005년에는 강원도 양양 산불로 1000ha의 산림피해와 낙산사와 같은 수많은 문화재가 소실됐다.

산불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실천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산에 오를 때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 것이 첫째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 야영,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지 않아야 하고,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지 않아야 한다. 이게 어려운가?

새로운 희망과 함께 봄이 왔다. 이 봄 입춘대길과 함께 급지막한 산불조심 현수막을 높이 걸어 둔다. 벌써 38년 나의 삶 절반은 산불과 함께했다. 어쩌다 집에서 쉬는 날에도 날씨가 좋으면 내 가슴 깊숙이 자리한 산불경정에 편지 못했던 계절이 또 돌아왔다. 아름다운 금수강산 가꾸는데 100년, 태우는데 순간이다. 높은 시민의식과 숲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불예방에 시민들이 참여했으면 한다.

社 說

대선 주자들 ‘호남 소외’ 해법부터 제시하라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조기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야권 대선 주자들의 ‘호남 민심’ 쟁탈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호남에 구애의 손길을 보내면서도 정작 광주·전남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핵심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이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은 근래 하루가 멀다 하고 광주·전남 지역을 방문해 ‘호남 소외 해소’나 ‘예산 배려’ 등의 말들을 앞다투어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메시지를 들여다보면 지역에 대한 새로운 비전은 고사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없다. 호남 소외 해소에 대한 진정성이나 어떤 해법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호남의 미래 발전을 위한 공약사업과 시기·절차·예산 등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채 구호만 외쳐대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현재 각 정당이 광주시·전남도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약사업 발굴에 나서고 있는 만큼 지역별 대선 공약

을 내놓기엔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선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의 골간을 제시하는 게 순리다. 그렇지 않아요 호남민은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저조한 광주·전남 지역 공약 이행률을 지켜보면서 큰 상실감을 겪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광주·전남 대선 공약은 모두 26건이었지만 20개 공약은 표면적으로 추진중이고, 6개 공약은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사업 정부 예산 반영률도 광주 38.48%, 전남 5.84%(2014년 기준)에 그쳤다.

공약사업은 낙후된 광주·전남 지역 발전을 위한 필요한 현안이자 성장 동력이다. 현실성도 없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없는 공약들만 쏟아낸다면 이는 호남민을 우롱하는 행위일 뿐이다. 대선 주자들이 호남의 민심을 얻고 싶다면 호남 소외를 해소할, 실현 가능한 공약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할 것이다.

‘김정남 피살’ 안보 외교 관리 만전 기해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지난 13일 오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피살됐다고 한다.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여성 2명으로부터 독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김정은의 지시 없이 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김정남은 김정일 위원장의 장남이긴 하지만 일찌감치 권력 승계 대상에서 벗어난 인물이었다. 이모인 성태랑이 1996년 외국으로 망명한 게 권력에서 밀려난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많다. 이후 그는 권력 중심부에서 밀려난 채 대체로 해외를 떠돌며 생활해 왔다. 김정은 정권은 고모부인 장성택에 이어 이제는 형제도 살해할 만큼 잔인해졌다. 김정은의 등장 이후 공포정치가 끝없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뒤집어보면 김정은 정권이 매우 취약하다는 분석도 있다.

어찌 됐든 이 사건으로 한반도의 안보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김정남 피살 사건의 외교 안보적 중요성을 감안, 사태의 배경과 국제사회의 움직임 등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하게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안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반도가 극도의 긴장에 휩싸이지 않도록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라 해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긴밀하고 섬세하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권은 선부터 판단과 전략적 이해로 정세 불안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자칫 눈앞의 이익을 좇다가 스스로는 물론 국가와 민족의 앞날에 화를 부르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과도한 위기 조장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등 김정남 피살 정국을 대선 전략으로 이용하려 해서도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無 等 鼓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자 차이밍 량 감독의 ‘안녕, 용문객잔’은 내일 문을 닫는 낡고 오래된 극장이 소재다. 그가, ‘영화관에 대한 헌사’로 불리고 이 영화를 만든 건 지난 2003년. 영화를 촬영했던 대만극장은 얼마 후 문을 닫았고, 그는 폐관된 영화관의 의자 100개를 보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협업을 위해 광주를 찾았던 감독은 광주극장에서 전국 시내필들과 함께 ‘안녕, 용문객잔’을 관람했다. 영화 속 ‘북화극장’과 유사한 광주극장 풍경을 그는 ‘분위기가 너무 익숙하다. 광주극장을 방문한 오늘은 너무 특별한 하루였다’고 말했다. ‘영화 속 극장과 비슷한 광주극장이 ‘안녕, 용문객잔’을 정기적으로 상영하는 특별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영화사에서 ‘안녕, 용문객잔’이 회자되는 건 오랜 역사를 뒤로하고 사라지는 ‘영화관의 마지막’을 함께 떠나보내는 ‘의식’을 치르는 동지애적 마음에 조금씩은 공감해서일 거다. 누군가의 추억과 인생이 담긴 ‘공간’이 사라지는 데 대한 자별 의식 같은 것 말이다.

오는 20일 광주극장에서는 소박한 ‘고별식’이 열린다. 긴 시간 관객들과 함께해 온 낡은 대형 스크린(17m×7.3m)을 떠나보내는 상영회(무료다). ‘헤어지고 어두워지고 초라해졌지만 오랜 시간 당신과 나의 시간과 영화들을 함께 공유했던 낡은 스크린에 대한 애정’을 담은 행사다. ‘쓸모를 다 이룬 광주극장 스크린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시원섭섭하던 말이 이런 느낌이군요.’ 영화관 홈페이지에 적힌 글처럼, 관람하기

에는 따른 불편했지만 그만큼 ‘추억’이 쌓인 스크린이다.

상영작은 ‘셜록 루키어’(1924·45분). 극장에서 영사기를 돌리며 탐정을 꾸무는 주인공이 초라한 현실과는 다른 스크린 속으로 들어가 환상적인 경험을 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이다. 인생맛춤이다.

이번 스크린 교체는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을 거부, 존립 위기에 빠졌던 영화관에 힘을 보탠 420여 후원 회원들의 정성이 발판이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23일부터 시합 가동 기간을 거쳐 조만간 스크린 ‘환영식’도 갖는다. 새로운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 가도 좋을 듯하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m.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